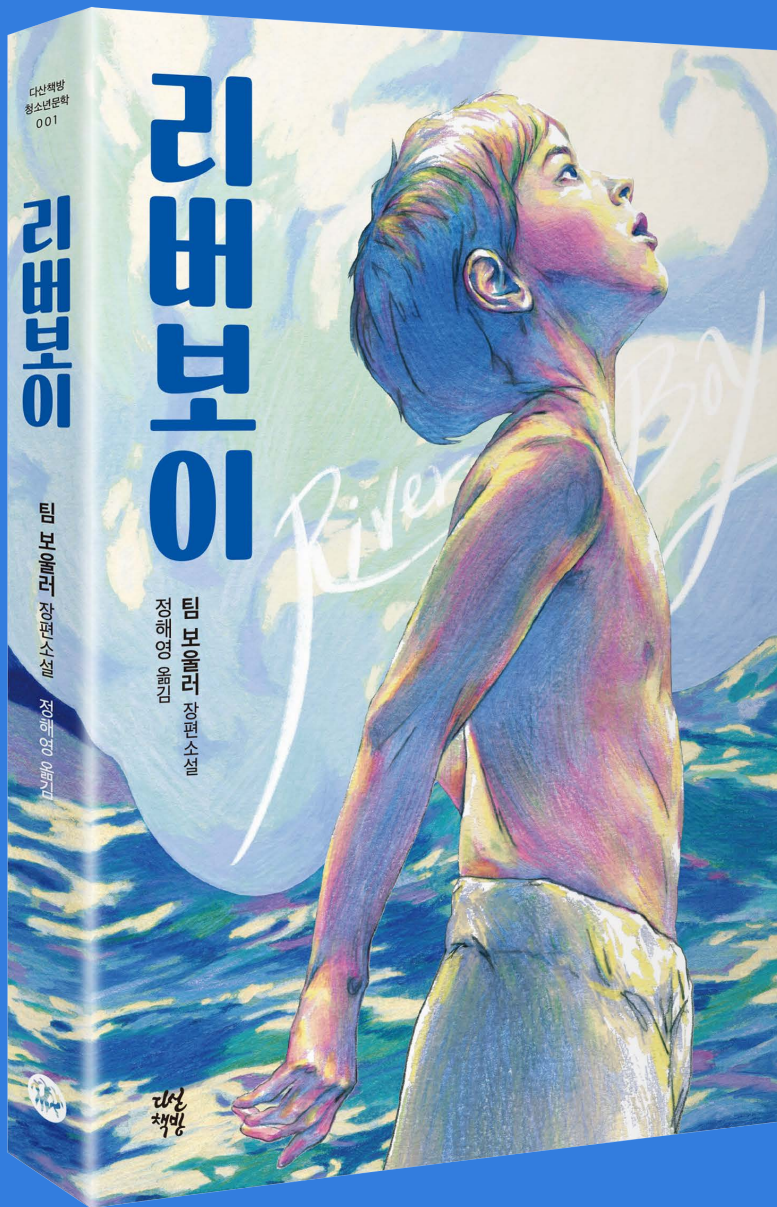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작성 이강휘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리버보이

팀 보울러 장편소설

주제어: 상실, 죽음, 성장

•책 소개

주인공 제스는 이제 막 열다섯 살이 됐다. 그러나 그 찬란한 시기에 생애 처음으로 소중한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사랑의 보호막이자 버팀목이었던 할아버지가 심장발작으로 쓰러진 뒤 불길한 예감은 점점 현실로 다가온다. 쓰러졌다가 가까스로 기력을 되찾은 할아버지는 미리 준비해놓았던 여행을 떠나자고 재촉하고,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와 열다섯 살 손녀의 아주 특별한 이별 여행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꾸만 마주치는 한 신비로운 소년. 그 소년을 만나며 그들의 여행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학습 목표

- ① 작품에서 활용된 중심 소재의 의미와 상징성을 파악할 수 있다.
- ② 작품 속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 ③ 작품 속 인물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읽을 수 있다.



•독서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1	독서 전 활동	그림과 친해지는 질문
2	독서 중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사실적 읽기) 인물의 특징 파악하기 3. (추론적 읽기) 인물 심리 제시 방법 파악하기 4. (창의적 읽기) 인물의 의도 파악하기 5. (감상적 읽기) 묘사 파악하기
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실적 읽기) 인물 간 관계 파악하기 2. (감상적 읽기) 자신의 뮤즈 찾아보기 3. (추론적 읽기) 인물의 의도 파악하기 4. (감상적 읽기) 나만의 공간 소개하기
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실적 읽기+비판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및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2. (추론적 읽기) 인물의 존재 여부 추론하기 3. (추론적 읽기) 인물의 실체 추론하기 4. (감상적 읽기) 인물에 감정 이입하기
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창의적 읽기) 상호 텍스트적 읽기 3. (감상적 읽기) 인물에 공감하며 읽기
6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론적 읽기) 인물 행동의 원인 추측하기 2. (창의적 읽기) 죽음의 수용 단계를 통해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3. (추론적 읽기) 인물의 상징성 파악하기
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실적 읽기+추론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및 내용 추측하기 2. (추론적 읽기)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기 3. (추론적 읽기) 인물의 심리 추측하기 4. (창의적 읽기) 다른 관점으로 감상하기
8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실적 읽기) 인물의 심리 변화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기 3. (추론적 읽기) 인물 행동의 상징적 의미 파악하기 4. (감상적 읽기) 작품 속 내용 내면화하기
9		독서 후 활동

1.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는 ‘그림과 친해지는 질문’ 세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관련 영상 : 미술관에서 그림을 잘 감상하는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EghFoYgfXrk>

질문 1

질문 2

질문 3

1.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 간단 퀴즈

- ① 제스가 좋아하는 운동은? ()
- ② 할아버지의 직업은? ()
- ③ 아빠의 직업은? ()
- ④ 아빠가 만든 수납상자의 별명은? ()

2. 빈칸을 채워봅시다.

만약 수영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녀는 끔찍한 혼란에 빠지고 말 터였다. 그녀는 물살을 가르는 힘과 (㉠)을 좋아했고, 눈앞에 어른거리는 (㉡)의 반짝임, 누에고치 속 애벌레처럼 물속에 폭 파묻혔을 때 느껴지는 묘한 (㉢)을 사랑했다. 장거리 수영을 할 때는 기술 못지않게 의지도 중요한 법이다. 그리고 그녀는 탁월한 기술과 굳은 의지 그 두 가지를 모두 지니고 있었다. 단지 그녀에게는 커다란 (㉣)이 필요할 뿐이었다. 의지를 다지고 스스로를 시험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언젠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할 뿐이었다.

- ㉠ : _____
- ㉡ : _____
- ㉢ : _____
- ㉣ : _____

3. 다음 영상을 보고 <보기>에서 활용된 할아버지의 성격 제시 방법이 무엇인지 그 이유와 함께 말해 봅시다.



관련 영상 : EBS [국어] 문학 -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ktMbIckJh8c&t=89s>

<보기>

그런데 갑자기 절박한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하지만 정확히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모든 게 좋아, 모든 게 좋아. 할아버지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떠올려봤을 때 방금 전 그 말은 그녀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뜻했다. 할아버지는 무척 완고하고 꼬장꼬장한 노인이어서, 늘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하곤 했다. 특히 괜찮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그랬다.

4.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 만약 제스의 할아버지가 영상 속에서 관람객처럼 작품의 의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생각해 봅시다.



관련 영상 : 관련 영상: [나 혼자 산다] 업계 사람들한테 탈탈 털리는 기안

<https://www.youtube.com/watch?v=w2tx1rDiYik>

[지도 TIP]

작품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 묘사되고 있는 성격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2)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자신의 그림에 제목을 붙이지 않았던 할아버지의 의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관련 영상 : [예술의 발견] 로스코의 작품은 위로를 건네고, 우리는 눈물로 답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cJkODuHZ70I>

<보기>

할아버지는 지금껏 자신이 그린 그림에 한 번도 제목을 붙이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그저 그림을 그렸고 사람들이 그 그림을 느끼도록 내버려둘 뿐이었다.

5. <보기>에서 묘사하는 풍경을 그려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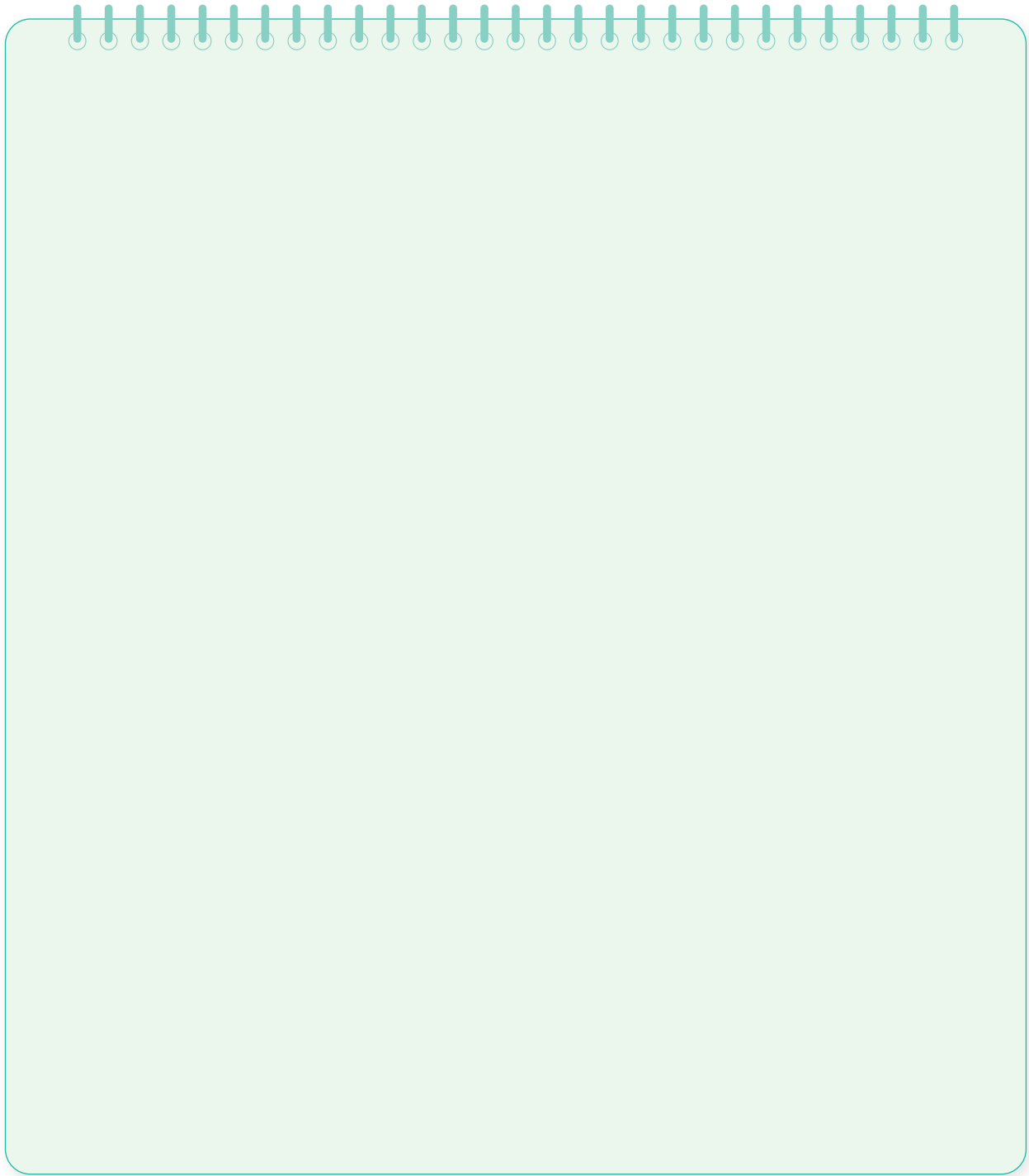
<보기>

이제 보니 별장은 그녀의 왼편으로 쪽 뻗어 있는 커다란 산의 밑자락에 위치하고 있었다. 강은 그 울창한 숲에서 흘러와 아래쪽으로 세차게 흐르고 있었다. 별장 주변에는 나무들이 뺨뺨했지만, 그 너머, 더 먼 곳에는 땅이 울퉁불퉁한 허허벌판이 보였다.

비록 나무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별장이 있는 곳은 숲속의 조그만 공터였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브레머스까지 연결된 좁다란 길이 있었다. 드문드문 차가 주차돼 있었는데, 어쩐지 주변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아서 굉장히 낯설게 보였다. 그러나 그 너머로 펼쳐진 풍경은 그녀의 눈길을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골짜기, 그곳엔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었다! 구불구불 흐르는 강줄기에서 골짜기 하나가 갈라져 나와 있었다. 골짜기 양쪽의 높은 비탈은 또다시 울창한 삼림으로 덮여 있었고, 그 군데군데에는 바위들이 박혀 있었다. 산속의 골짜기를 확인한 그녀는 바로 앞 강가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다.

너무도 아름다운 이 강줄기는 폭이 4~5미터 정도였고, 비탈진 급경사를 타고 흐르는 까닭에 그 속도가 만만치 않았다. 그래도 일단 제스는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다리 사이로 스며드는 냉기 때문에 한순간 숨이 턱 막혔지만, 그 날카로움이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다. 강물이 다리 사이를 스치며 빠르게 흘렀다. 강 전체의 생동감이 다리를 타고 온몸으로 짜릿하게 번졌다.



【지도 TIP】

자연에 대한 탁월한 묘사가 일품인 작품입니다. 비단 이 장면이 아니더라도 작품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 자연 풍광을 그려봄으로써 작품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보세요.)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인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보기〉

그녀가 아빠에게 말했다. 어느 틈엔가 엄마가 밖으로 나와서 말을 거들었다.

“나도 별로 걷고 싶은 기분이 아니에요. 그레이 씨 택에나 가보죠.”

할아버지가 마침내 비틀거리는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고선 제스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다.

“제스가 원한다면 함께 있으마. 너희 둘은 나가봐.”

“하지만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죽지 않을 계획이니까.”

“그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버님 때문에 휴가를 망치긴 싫거든요.”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가 눈을 부릅뜨며 엄마를 쳐다봤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1) ㉠과 같은 농담이 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아빠가 ㉡과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자신의 뮤즈에 대해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봅시다.

〈보기〉

엄마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그래, 비슷하구나. 어쨌든 네가 이 그림에 대해 뭔가 알고 있기를 기대했는데. 넌 할아버지의 작은 요정이잖니.”

“요정?”

“응, 요정. 다른 말로는 뮤즈.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란 뜻이야.”

뮤즈…… 그녀는 이미 그 말에 익숙했다. 그림을 그리실 때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자주 입에 올리셨다. 요즘 뮤즈의 심기가 꽤나 불편한 모양이야, 통 도와주질 않아.

혹은 중요한 그림이니 뮤즈에게 잘 보여야 해, 라는 등의 말이었다. 그렇지만 그녀를 뮤즈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뮤즈’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일종의 여신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여신이라도 할아버지처럼 고집 세고 의지 강한 노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했다.

그녀는 몸을 뒤로 젖힌 채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의 모순된 행동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봤다. 내 생각이 왜 중요할까? 제스는 그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할아버지가 자신의 곁에 있을 때 좀 더 편하게 그림을 그리신다는 것만 느낄 뿐이었다. 할아버지는 정말 나를 ‘자신의 뮤즈’로 생각하고 계신 걸까. 물론 엄마의 그 말이 없었다면 결코 떠올릴 수 없는 생각이긴 하지만 말이다.

【지도 TIP】

‘뮤즈’를 자신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 등으로 확장하여 떠올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3. 다음 보기를 읽고, 할아버지가 알프레드를 찾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보기〉

“할아버지는 마을을 떠난 후엔 누구하고도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건 확실해.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사셨지. 하지만 찾고 싶은 사람은 있다고 하셨어. 알프레드라고…… 근처에 함께 사셨던 분이razi. 하긴 그분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야. 설사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직접 만날 수 없을 게 뻔해. 우리 숙소가 웬만큼 동떨어져 있어야지. 가장 가까운 집이 3킬로미터 밖에 있단다. 하아…… 이게 할아버지가 원하신 휴가란다.”

아빠가 말하며 별장으로 들어갔다. 엄마가 알프레드 할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셨다는 걸 알면 아버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지는 않네. 어렸을 때도 그 친구는 내게 통 시간을 내주지 않았거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야. 사람이 변했다면 모를까.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더 희박하지.”

그 말에 제스는 알프레드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봤다. 하지만 그는 비꼬거나 빈정거리기보다는 오히려 애정을 담아서 그 말을 하고 있었다.

【지도 TIP】

할아버지가 친구인 알프레드 할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이유는 직접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프레드 할아버지의 성격과 행동, 할아버지의 말, 고향에서 겪은 일 등 작품 속에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그 이유를 자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4. 여러분의 ‘나 혼자만의 공간’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보기〉

“아빠, 산책 좀 다녀와도 돼요?”

“산책? 어디로?”

“그냥 좀 둘러보고 싶어요.”

“그럼 아까 함께 갈 걸 그랬네. 그때 따라오지 그랬니?”

“그땐 할아버지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제발, 아빠. 멀리 가지 않을게요.”

“글쎄, 혼자 다니는 건 좋지 않단다.”

“왜요?”

“왜냐하면…….”

아빠는 알프레드 할아버지를 쳐다봤다.

“여기는 낯선 곳이고…… 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만약 혹시나…….”

알프레드 할아버지가 아빠의 마음을 짐작하고는 앞서서 말했다.

(중략)

“체스는 괜찮을 걸세. 생각이 깊어 보여. 사실 이곳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괜찮지. 조금 심심하기는 해도 나 혼자만의 공간에 와 있다는 기분이 그런대로 괜찮거든.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은
나 혼자만의 공간

그곳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보세요.)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 다음 빈칸을 채워봅시다.

〈보기〉

1.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단 하루도, 1분 1초도 미래나 과거를 생각하는 데 허비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는 데 집중하라고. (㉠)가 되라고 말이다.
2.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다. 진짜 존재하는 것은 현재뿐이고, 과거와 미래는 단지 현재를 씹먹을 뿐이야. 그건 아무것도 주는 것 없는 (㉡)에 불과해.”

㉠ : _____

㉡ : _____

2) 과거와 미래보다 현재에 충실하라는 할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하나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나의 생각	
친구들의 생각	

2. <보기>의 장면에서 제스가 실제로 소년을 본 것일지, 아니면 제스의 환상이었는지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보기〉

그때 그가 불쑥 모습을 드러냈다.

폭포 꼭대기에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소년**. 키가 무척 컸고, 햇빛이 눈부신 탓에 정확한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소년인 것은 분명했다. 그는 검은 반바지만 입고 있었다. 아니, 사실 그조차도 확신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제스는 그가 자신을 봤는지 못 봤는지 알지 못한 채 가만히 서서 그를 응시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지도 않았다. 마치 그 자신이 물의 일부인 것처럼 그저 미동 없이 그곳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제스는 문득 그가 계곡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급류 한가운데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된 일이지? 저 강력한 물살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고요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녀는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눈을 부릅떴지만, 햇빛 때문에 곧이어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을 몇 번 깜빡이고 문지른 뒤 다시 그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의견	제스가 실제로 소년을 보았다	소년은 제스의 환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3.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참고하여 소년의 정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보기〉

그녀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이 소년은 누구일까? 이렇게 한밤중에 강에 나와서 뭘 하는 거지?

(중략)

제스는 이 불가사의한 미스터리를 단박에 해결하고 싶었다. 그 소년에게 ‘너는 누구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묻고 싶었다. 소년은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 말을 건네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너무 빨리 다가갈 필요도 없었다.

【지도 TIP】

소년의 정체는 작품을 관통하는 키워드이며 작품을 후반부에는 그의 정체를 추측할 수 있는 힌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초반부이므로 소년의 정체를 파악할만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활동은 소년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소설 이해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정도로 활용해 주세요.

4. 영상을 참고하여 너무 말이 많아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알프레드 할아버지에게 제스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을 생각해 봅시다.



관련 영상 :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할 '똑똑하게 화내는 법'
<https://www.youtube.com/watch?v=x4kNrszQ9Kg>

〈보기〉

“무슨 일이니, 제스? 뭐가 그리 급해?”

“알프레드 할아버지께 물어볼 게 있어요.”

“음…… 대답은 원 없이 들을 수 있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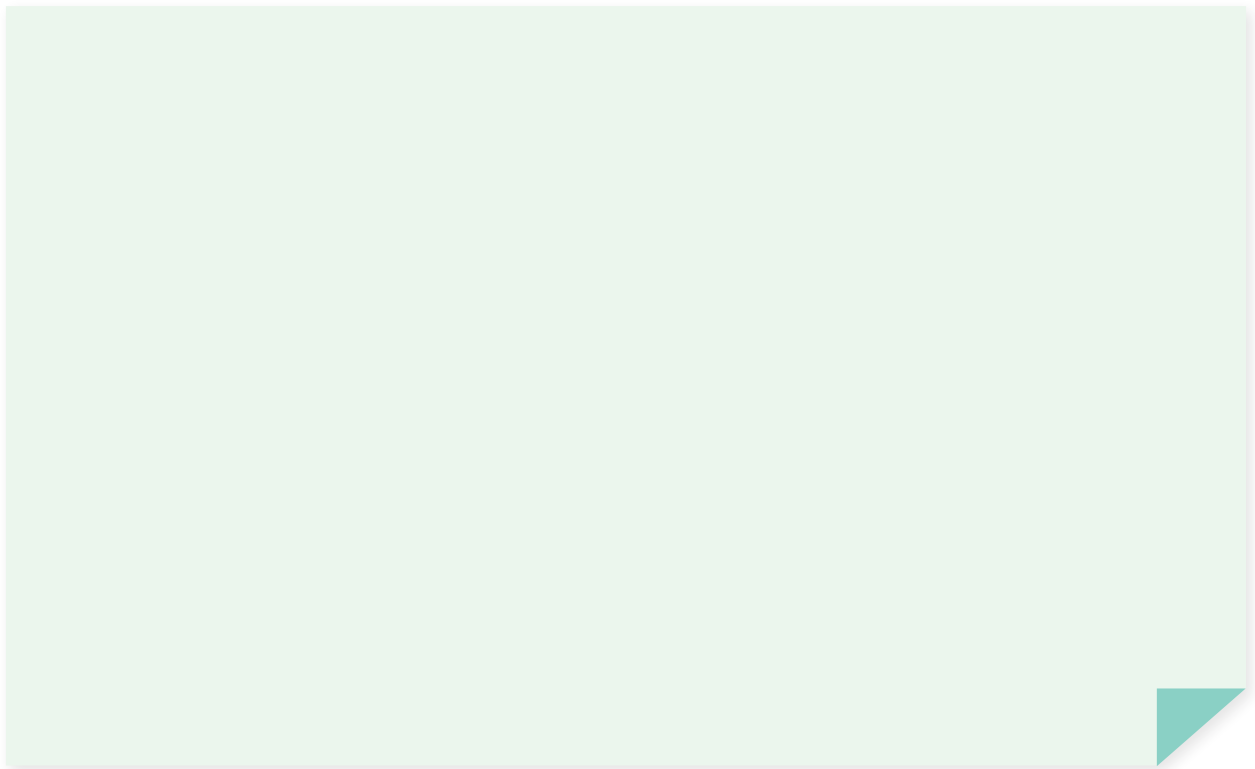
제스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몸을 문밖으로 내밀었다. 그때 아빠가 제스의 팔을 잡았다.

“제스, 정말이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다만…….”

“알아요, 아빠. 알프레드 할아버지를 다시 집에 데려오지 말라는 거죠?”

아빠가 조금은 민망한 듯이 웃었다.

“좋은 분이신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꽤 지치는구나.”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보세요.)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작품을 읽고 맞는 것에 O, 틀린 것에 X를 해봅시다.

• OX 퀴즈

- ① 할아버지가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것은 마음의 상처 때문이다. (O / X)
- ② 제스는 수영을 하라는 할아버지의 권유에도 끝까지 물에 들어가지 않았다. (O / X)
- ③ 할아버지는 제스에게 알프레드를 피해 관에 들어갔었다고 말했다. (O / X)
- ④ 예나 지금이나 할아버지는 말이 많은 알프레드를 싫어한다. (O / X)

2. <보기1>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2>의 화자가 ㉠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추측해 봅시다.

<보기 1>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우리는 어쩌면 시간의 미로 속에 갇힌 건지도 몰라. 생각해보렴. 여긴 우리 가족뿐이야. 번잡한 도시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조용한 시골에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여길 봐. 이곳은 수백 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잖아. 이곳에서는 시간도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지. 사실이 그렇고, 할아버지도 이곳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하시던데.”

“아니야, 많이 변했다고 하셨어.”

“물론 할아버지 입장에서서는 그럴 거야. 어렸을 때 본 모습이 마지막이니까. 그렇지만 진짜로 변한 건 이곳이 아니라 할아버지일 거야. 삶에 대한 느낌이 그때와는 다른 거겠지. 어쩌면 그래서 이곳에 있는 동안,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기분이 드는 건지도 모르지.”

<보기 2>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산꿍이 알을 품고

뼈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港口)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뒤편에 홀로 오르니

흰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 「고향」, 정지용

3.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1) 병원에 들어가길 거부하는 할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봅시다.

〈보기〉

“할아버지는 병원에 가셔야 해요.”

“또 시작이냐!”

“하지만 가셔야 해요. 그래야 한다는 걸 할아버지도 잘 아시잖아요. 오래 걸리지 않을지도 몰라요. 최악의 고비만 넘기면…….”

“아니다, 아니야. 이번에 병원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해. 송장으로 실려 나온다면 모를까. 네 엄마가 병원에 전화할 권리는 없었어.”

2) 영상을 본 후 할아버지가 병원에 들어가길 거부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관련 영상 :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 '어떻게 죽을 것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v=Gf7mxBzlXXk>

【지도 TIP】

죽음을 앞둔 노인의 처지를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영상을 통해 병원 입원을 두려워하는 할아버지의 심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보세요.)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추측해 봅시다.

〈보기〉

아빠 역시 괴로워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괴로움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제스는 아빠가 얼마나 할아버지의 사랑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제스에게 쏟아붓는 사랑을 좀처럼 자신의 아들에게는 나눠 주지 않았다. 사실 지금 할아버지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아빠였다. 아빠는 할아버지를 위해 굶은 일을 도맡아 하고, 며느리나 손녀가 하기 힘든 민망한 일들을 손수 살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만큼은 그토록 냉정한 것이다. 그것은 아빠뿐 아니라 제스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했다. 아빠는 단 한 번도 그것을 불평한 적이 없었지만 내심 서운해하는 것만은 분명했다.

【지도 TIP】

할아버지가 아빠에게만 유독 냉정하게 구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힌 부분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하게 상상할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유사한 경험이 있으면 관련지어 말해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2. 다음 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관련 영상 : 관련 영상: 죽음학이야기 [#7] 죽어가는 환자가 겪는 다섯가지 단계
<https://www.youtube.com/watch?v=dEF1p6GS-uo>

1) 〈보기〉에서 보이는 할아버지는 환자가 겪는 다섯 가지 단계 중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기〉

“이렇게 안 좋아지다니. 내가 말이다. 난…… 어쩌면…… 기대했었다. 이렇게 조금 쉬고 나면 다시 기력이 돌아올 거라고. 그런데 이제는 틀린 것 같다.”

할아버지가 제스를 쳐다봤다.

“이제 나를 브레머스의 병원으로 데려가도 좋다. 이제 그림을 완성하기는 영 틀린 것 같구나.”

(중략)

그녀는 그런 말을 듣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포기하실 거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포기했다. 그리고 포기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괴로워하고 계셨다. 패배,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고통보다도 할아버지를 더 괴롭히는 것이었다.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채 휠체어를 타고 병동으로 들어가 끊임없이 좌절하고 분개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은 제스 역시 한 번도 상상 해본 적 없는 결말이었다.

2) <보기>에서 할아버지가 그림을 완성하도록 돕는 제스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봅시다.

<보기>

“할아버지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다고 말했잖아.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린다는 거냐?”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할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제가 있잖아요. 제 손이 있잖아요. 우리 함께 그림을 끝내요.”

할아버지는 제스의 눈빛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할아버지가 다시 그녀를 바라봤다.

“침대에서서는 안 된다. 난 침대에서서는 못 그린다.”

“그럼 제가 휠체어에 앉혀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제스에게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맙소사, 너 같은 고집쟁이는 처음 본다.”

“흠, 전 봤는데요.”

“이런! 누가 네 남편이 될지는 몰라도 몹시 걱정되는구나.”

“휠체어 가져올게요.”

제스는 할아버지 마음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밖으로 나가 휠체어를 끌고 왔다.

【지도 TIP】

영상을 볼 때 죽음 수용의 각각의 단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각각의 단계에서 주변인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소개하는 부분도 주의 깊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를 통해 할아버지가 그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스의 행동이 죽음을 수용한 할아버지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라는 사실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3. 제스가 <보기>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보기>

그녀는 그 소년이 자신의 할아버지와 깊게 연결돼 있음을 느꼈다. 마치 그 소년이 할아버지의 운명을 예견할 것만 같은, 할아버지의 삶과 죽음에 관한 어떤 계시를 헤줄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

【지도 TIP】

<보기>는 할아버지와 소년이 연결되어 있음을 밝힌 부분입니다. 이를 토대로 소설의 뒷부분을 추측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작품 마지막 부분을 읽고 난 후 <보기>가 소설 결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보세요.)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보기>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보기>

“넌 왜 내가 도와주길 원하는 걸까. 네가 하려고 하는 그 ‘두려운 일’ 말이야. 이유는 모르겠지만, 널 위해서 내일 새벽에 강가로 나갈 거야. 강이 시작하는 그곳에서 널 도울게…… 하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을 거야. 할아버지에게 가봐야 하니까.”

1) 소년이 제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두려운 일’이란 무엇이었는지 찾아 써봅시다.

2) <보기>에서 밑줄 친 제스의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

[지도 TIP]

리버보이는 할아버지의 분신이자 할아버지와 제스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스가 할아버지가 그림을 완성하도록 도와주었던 행위나 리버보이가 할아버지의 분신이라는 근거, 리버보이와 제스 사이의 교감 등을 고려하여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2. <보기1>과 <보기2>를 고려하여 할아버지와 리버보이와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보기 1〉

“이제 강을 보내야 할 시간이야.”

“강을…… 보내다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강을 보내줘야 해. 마냥 붙들고 있을 순 없어. 하지만 아직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가 그녀를 힐끗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난 바다까지 헤엄쳐 갈 거야.”

그녀는 깜짝 놀랐다.

“제정신이야? 바다는 여기서 4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고.”

“똑바로 가면 그렇고, 강을 따라가면 70킬로미터지.”

“70킬로미터?”

“아마 몇 시간은 죽히 걸릴 거야. 하지만 물살이 도와줄 거야. 물살에 몸을 맡기면 자연히 바다로 흘러갈 수 있을 거야. 난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난 여기서부터 적당한 곳을 찾을 때까지 물속을 걸어갈 거야. 몸을 담그고 수영할 수 있을 만큼 깊은 곳까지.”

〈보기 2〉

“그 친구는 강을 사랑했단다. 시간만 있으면 수영을 하곤 했지. 실제로 잘하기도 했고, 제대로 훈련만 받았다면 최고의 장거리 선수가 됐을 거야. 하지만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어. 그 친구는 언젠가 꼭 한번 강의 시작점에서 바다까지 헤엄쳐 갈 거라고 말하곤 했지.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큰 화재가 나서 가족 전부를 잃었으니 말이다. 그러자 그 친구는 가슴 아픈 과거를 떨쳐버리기라도 하듯 한시바삐 이 마을을 떠났다. 그러니 그 희망을 이룰 기회가 없었지. 아마 앞으로도 힘들 것 같구나.”

3. 제스가 ㉠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보기〉

별로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다. 이곳은 그저 조그만 폭포에 불과했으며, 그녀가 종종 다이빙하곤 했던 동네 수영장의 다이빙대보다 높지도 않았다. 바로 아래쪽 바닥에는 바위도 없었고, 물은 깊고 모든 게 완벽했다. 게다가 그 소년도 방금 해내지 않았던가. 그녀는 평소처럼 오늘도 걸옷 아래에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준비할 것도 없었다. 그저 티셔츠와 신발을 벗어던지고, 물이 떨어지는 곳으로 걸어가서 소년이 한 것처럼 자세를 잡고 물속으로 몸을 던지기만 하면 됐다.

㉠ 그러나 그녀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왜 그럴 수 없는지도 알았다.

【지도 TIP】

단순히 위험한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이라는 해석부터 할아버지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든지 리버보이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해석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4. 영상을 본 후 제스 식구들이 할아버지의 리버보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관련 영상 : 한국팀이 보여준 마지막 반전에 전원 기립 박수 나온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XKVKdxCboVc>

“최고라고는 할 수 없군.”

아빠가 말했다. 지금 아빠는 햇빛에 그림을 비취 보고 있는 중이다. 엄마도 그 옆에 서서 그림을 찬찬히 살폈다.

(중략)

“이번 그림은 좀…… 뭐라 말할 순 없지만…… 망치신 것 같네요.”

엄마가 말했다.

(중략)

“왜 이 그림의 제목이 ‘리버보이’일까요? 그림 속에 소년이 없잖아요.”

(중략)

그녀는 그림을 들여다봤다. 할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짜내 완성한 저 그림, 그러나 제스는 그 그림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쩌면 먼 미래에, 그들보다 더 안목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그림이 굉장해 보일지도. 아니, 모르겠다. 어쩌면 이 그림은 서서히 죽어가는 한 남자가 소녀의 손을 빌어서 발작적으로 토해낸 마지막 환상일지도 모른다.



알프레드 할아버지의 말은 그녀의 뇌리에 충알처럼 박혔다. 그녀는 다시 그림으로 눈을 돌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림을 살폈다. 검은 얼룩은 머리카락, 안개로 덮인 물길들은 코와 입, 검은 점들은 눈처럼 보였다. 거기에는 얼굴이 있었다. 어떻게 지금까지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불과 얼마 전에 폭포에서 마주쳤던 그 얼굴을.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 나의 ‘리버보이’를.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보세요.)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빈칸을 채워 소년을 따라나선 제스의 심리 변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스는 자신의 온몸으로 (㉠)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과 싸우며 계속해서 팔다리를 내저었다. 팔다리를 저을 때마다 느껴지던 조화로움과 (㉢)은 이제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돌연 알프레드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뛰쳐나간 그녀를 기다리다 참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찾아보았을 것이다. <중략> 갑자기 (㉣)이 몰려왔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녀는 멈출 수 없었고, 멈출 생각도 없었다. 그녀는 리버보이를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때까지 수영을 계속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영원히.



(㉤)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결국엔 자신이 승리할 것을 알고 때를 노리며 몰래 뒤쫓아 온 식인 물고기 처럼. 그녀는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히는 멀미와 싸우며 간신히 헤엄쳐 갔다.



그녀는 엉엉 (㉥) 심정이었다. 할아버지 때문에, 자신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저 앞 어딘가에 있을 소년 때문에 울고 싶어졌다. 그녀가 지금 뒤쫓고 있고, 늘 뒤쫓아 왔던 그 소년 때문에.



그녀는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그의 놀라운 등장에 힘을 얻어 그를 따랐다. 그는 천천히 여유롭게 헤엄쳐 갔다. 머리를 물에 묻은 채 그녀를 돌아보지도 않고 천천히, 심지어 기어가듯 헤엄쳤다. 그녀는 (㉦)과 애정에 가까운 깊고 격렬한 감정에 휩싸여 그와 함께 헤엄쳤다.

㉠		㉢	
㉡		㉣	
㉤		㉥	

2. <보기>에 제시된 장면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리버보이와 할아버지와 제스와의 관련성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보기>

(가) “할아버지는 이제 괜찮으실 거야.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어.”

그녀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아니면 단지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그러는 것일까? 제스는 소년을 바라봤지만 그는 눈 끝으로만 그녀를 힐끗 쳐다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 “낮에 경찰이 너를 찾고 있을 때, 할아버지는 끊임없이 네 얘기를 하셨단다. 그런데 이상한 건 마지막 순간까지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네가 사라졌다는 건 말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시는 것처럼 계속 ‘제스는 걱정 마라. 그 애는 괜찮을 거다. 그 애는 괜찮을 거야’ 하고 말하시는 거야. 굉장히 확신에 찬 어조로 말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위안이 되었단다.”

(다) 사건은 그 소년과는 상관없이 시작됐다. 오히려 그녀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수영을 통해서 자신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훗날 그 사건을 곰곰이 되짚어보면, 리버보이가 항상 자신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슴에 품은 절실한 꿈처럼, 리버보이 역시 언제나 그녀의 일부분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꿈은, 리버보이는, 그녀의 삶 자체이기도 했다.

[지도 TIP]

(가)는 리버보이와 할아버지, (나)는 제스와 할아버지, (다)는 리버보이와 제스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각 장면을 인물 중심으로 요약하고 이를 통해 인물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3. <보기 1>를 참고하여 제스가 강의 시작점에 할아버지의 유골을 뿌리는 행위(<보기2>)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기 1>

“강은 여기에서 태어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거리만큼 흘러가지.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곧게 때로는 구불구불 돌아서,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바다에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흐르는 거야. 난 이 모든 것에서 안식을 찾아.”

“어떻게?”

“강물은 알고 있어. 흘러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기든, 어떤 것을 만나든 간에 결국엔 아름다운 바다에 닿을 것임을. 알고 있지? 결말은 늘 아름답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하지만 죽음은 아름답지 않아.”

그녀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말했다.

“아름답지 않은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이겠지.”

그가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삶이 항상 아름다운 건 아냐. 강은 바다로 가는 중에 많은 일을 겪어. 돌부리에 차이고 강한 햇살을 만나 도중에 잠깐 마르기도 하고. 하지만 스스로 멈추는 법은 없어. 어쨌든 계속 흘러가는 거야. 그래야만 하니까. 그리고 바다에 도달하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준비를 하지. 그들에겐 끝이 시작이야. 난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

<보기 2>

그녀는 항아리를 기울여 발원지에서 솟는 물 위로 유골의 일부를 조금씩 흘려보냈다. 물에 떨어진 유골은 물살과 함께 이리저리 뭉치며 흩어지며 물길을 따라 흘러가기 시작했다. 일부는 물 옆의 말랑말랑한 땅에 달라붙었지만, 대부분은 조그만 씨앗처럼 더 큰 물줄기를 향해 떠내려갔다.

4.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1) 가까운 사람과 사별한 경험이 있다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2) 1)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기>의 의미에 대해 말해봅시다.

<보기>

제스는 할아버지의 영혼이 이 마법의 공간을 떠돌지 않고 이제는 그녀 안에, 엄마와 아빠 안에, 알프레드 할아버지 안에, 그리고 할아버지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안에 머물러 있음을 깨달았다.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보세요.)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 아래 순서에 따라 북트레일러를 만들어봅시다.



관련 영상 : 2020 북트레일러 최우수작_금정중_리버보이
<https://www.youtube.com/watch?v=E-ITwXGMW4M>

북트레일러 제작 시 주의사항

1. 작품의 줄거리를 이해한 후 제작해야 합니다.
2. 스토리보드(콘티)는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3.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구성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4. 북트레일러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5. 북트레일러에 이야기의 결말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6. 되도록 글자는 최소화하여 간결하게 만듭니다.
7. 저작권과 출처는 반드시 밝힙니다.
8. 책의 서지사항(표지, 제목, 저자, 출판사)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9. 다양한 북트레일러를 참고해봅니다.

1. 아래 질문에 답해봅시다.

1) 아래 영상을 참고하여 작품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관련 영상 : 이야기 요약하는 방법 (간추리는 방법, 줄거리 쓰는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9fAIXK1JDgM>

2) 인상적인 구절과 그 이유를 써봅시다.

3) 중심인물의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4) 작품 속 주요 사건을 정리해 봅시다.

5) 작가가 작품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였을지 생각해 봅시다.

2. 함께 북트레일러를 만들 모둠원을 모집합니다. (3~5인)

3. 모둠원들과 함께 앞서 작성한 내용에 관해 대화를 나눕니다.

4. 모뎀원 역할을 정합니다.

- 모뎀장 1명
- 콘티 및 대본 제작 2명
- 영상 제작 및 편집 1명

5. 모뎀원들과 토의하여 북트레일러 시놉시스(개요)를 작성합니다. 북트레일러의 흐름을 순서대로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6. 영상에 들어갈 스토리보드(콘티)를 구성합니다.

컷	화면구성 (그림으로 나타낼 것)	내용	효과음	시간

7. 스토리보드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1~2분가량)

【지도 TIP】

영상 및 음원 사용 시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8. 완성된 프로그램을 친구들과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도 TIP】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북트레일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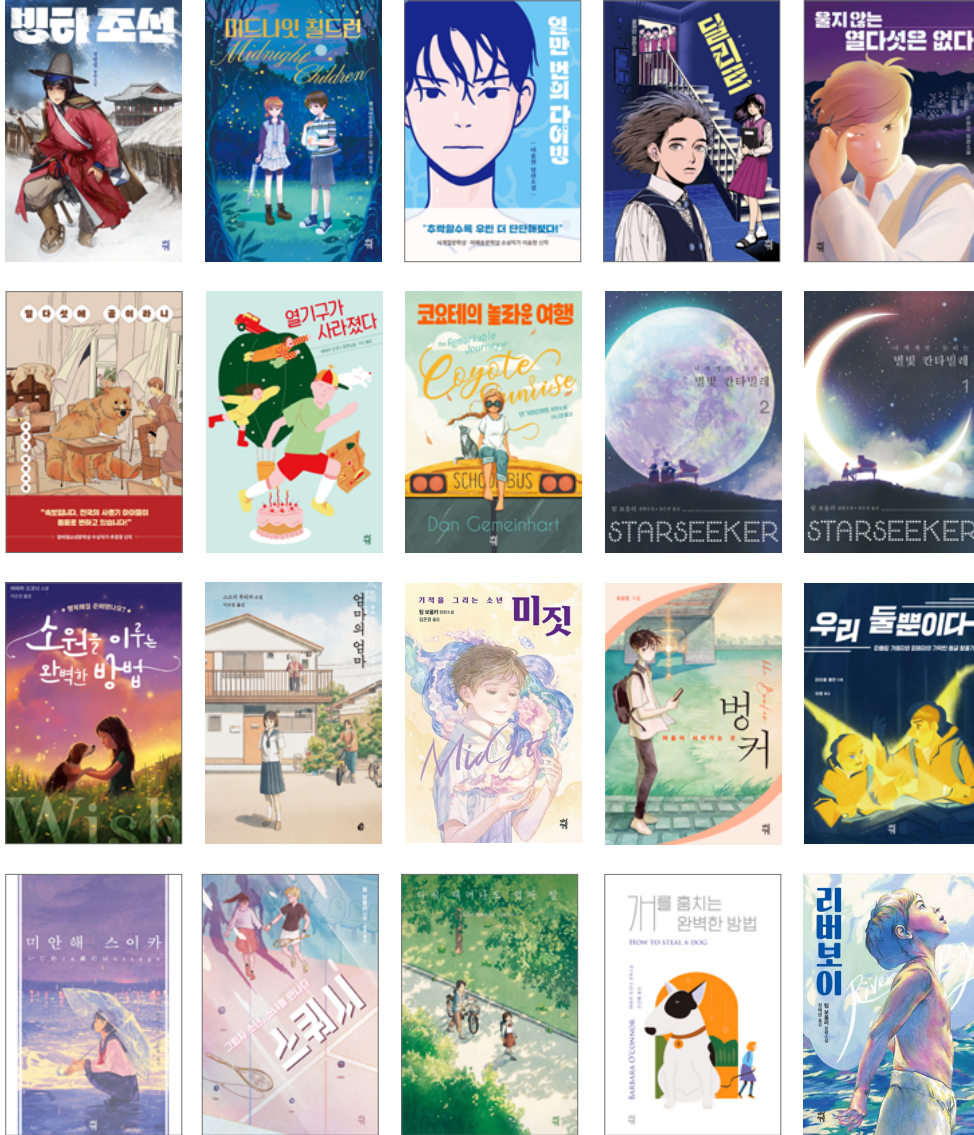
관련 영상 : 스마트폰으로 북트레일러 만들기_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https://www.youtube.com/watch?v=jja2qXc2GPQ>



다산책방 청소년문학

다산책방 청소년문학은 오늘날의 십 대가 마주한 고민과 시대를 넘어서는 질문을 이야기로 풀어낸 시리즈입니다.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하고 읽는 재미까지 선사하는 작품을 엄선해 선보입니다.



- | | |
|----------------------------------|--------------------------------|
| 20 빙하 조선 정명섭 장편소설 | 10 소원을 이루는 완벽한 방법 바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 19 미드나잇 칠드런 댄 거마인하트 장편소설 | 09 엄마의 엄마 스키 루리카 장편소설 |
| 18 일만 번의 다이빙 이송현 장편소설 | 08 미짓, 기적을 일으켜줘 팀 보올러 장편소설 |
| 17 딜리트 실재인 장편소설 | 07 빙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추정경 장편소설 |
| 16 울지 않는 열다섯은 없다 손현주 장편소설 | 06 우리 둘뿐이다 마이클 콜먼 장편소설 |
| 15 열다섯에 곰이라니 추정경 장편소설 | 05 미안해 스이카 하야시 미카 장편소설 |
| 14 열기구가 사라졌다 바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04 스쿼시 팀 보올러 장편소설 |
| 13 코요테의 놀라운 여행 댄 거마인하트 장편소설 | 03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스키 루리카 장편소설 |
| 12 나에게만 들리는 별빛 칸타빌레 2 팀 보올러 장편소설 | 02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바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 11 나에게만 들리는 별빛 칸타빌레 1 팀 보올러 장편소설 | 01 리버보이 팀 보올러 장편소설 |